



발행인 목천군수 편집 편집위원회 주소 충청북도 목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T. 043)730-3065 홈페이지 www.oc.go.kr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의하면 목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3~4면). 사진은 서화천생태습지.

야속한 코로나에 지역축제 줄줄이 온라인 판매행사 대체
매년 봄이면 각종 축제들로 활력이 넘쳤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지역 축제들이 연기되거나 비대면 행사로 대체되고 있다.(관련기사 6면)

02 기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03 기획
통계로 살펴본 목천군민 삶의 질

04 기획
충북사회조사, 무엇을 담고 있나

05 종합
지역현안 해결 위한 목천군 광폭 행보

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오는가... 집단면역 형성으로 일상회복 꿈꾼다

1분기 955명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로 접종률 96%... 요양병원 65세 이상 입원 · 종사자 등 600명 접종

코로나19 속에서 일상을 보낸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된 가운데 국민들은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곳곳은 벚꽃으로 만개해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마음 편히 밖으로 나가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없는 요즘 민족시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절이 떠오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빼앗긴 채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염원하고 있다.

옥천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집단면역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옥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단장 최웅기 부군수)'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완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2반 9개 팀으로 구성해 지역 접종 대상자 파악과 접종 기관, 수행인력 관리, 백신 관리, 위탁계약, 안전관리 등 제반 사항 마련을 위해 세부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1분기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65세 미만 95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요양병원(3곳) 195명, 요양시설(13곳) 424명, 성모병원 144명, 1차 대응요원 192명 등이다. 백신 접종률은 96%에 달했다. 예방접종 후 일부 두통, 근육통, 접종 부위 압통 등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상 증상은 접수되지 않았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옥천군보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요양병원 및 요양·정신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보건소는 7개조 42명으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요양·정신시설(10개소) 420명을 방문 접종했고, 요양·정신병원(3개소) 180명은 자체 접종을 완료했다. 일반 주민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오는 5월부터 백신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오는 15일부터 백신접종을 시행한다.

◆옥천체육센터에 예방접종센터 설치

군은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확보와 초저온 냉동고 설치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mRNA백신(핵산백신) 접종을 위해 옥천체육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지난 4일 설치했다.

군은 mRNA백신 중의 하나인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만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 위

해 7일부터 9일까지 보건소와 소방 관계자, 군인, 경찰, 한전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 참가자들은 백신 준비를 시작으로 접종자, 의사, 간호사, 안내자 등 역할을 맡아 입실부터 퇴실까지 전반을 연습하고, 대상자 신분 확인과 접수, 예진표 작성·확인, 예진, 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확인서 발급, 퇴실 등 접종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와 함께 이상 반응 징후 환자 발생을 대비한 응급 이송 절차와 동선도 점검한다.

◆75세 이상 1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5일 개소하며, 우선 75세 이상 일반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4월 1일까지 대상자 6870명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 조사를 실시했고, 각 읍면에서는 조사한 사항을 예방 접종시스템에 등록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며, 예방접종센터 중심으로 근거리에 있는 읍면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접종 후에는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최소 3일간 이상반응 유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에 2차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까지 접종이 완료되면 옥천 전체 주민의 15% 정도가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게 된다. 3분기부터는 18세 이상 64세 미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접종동의 여부 확인 및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라도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로 확정되면 접종일시를 통지한다.

한편, 백신 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전신 반응으로는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이나 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

거나 열이 39℃가 넘으면 신속히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한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첫 걸음인 만큼 주민들은 접종 순서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어도 항체 형성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집단 면역력 확보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옥천군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반인 접종에 대비해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옥천체육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2분기 예방접종 이렇게 실시됩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3월 4주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 방문
4월 1주	노인 시설 (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보건소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보건소
4월 2주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방문(위탁)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4월 3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위탁)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보건소)
4월 4주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방문(보건소)
5월	항공승무원	보건소 등
	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6월	장애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시기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3.15일 기준, 2~3월 접종대상자(79,3만)는 미포함.



옥천주민들의 삶과 생활만족도가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 동이면 석화 양지말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 모습)

옥천군민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삶과 생활 만족도가 충북 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말 충청북도에서 공개한 ‘2020 충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옥천군민이 느끼는 삶의 질 관련 만족도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충청북도에서 2009년부터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통계조사로, 2020년도에는 가구·가족, 교육·보건, 사회통합 등 11개 부문 공통항목 53개에 각 시·군 특성항목을 추가해 도내 1만 160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주(1524가구)와 충주·제천(각 1200가구)을 제외한 8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각각 960가구가 참여했다.

이 중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어제의 행복, 어제의 걱정 등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감 중 무엇이 더 유용할까? 통계청에서는 ‘객관적 지표는 개인이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개인 수준에서의 ‘주관적 웰빙’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라고 말한다.

주관적 웰빙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나뉘어 측정한다. 인지적 요인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말하며, 정서적 요인은 다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뉜다.

2020 충청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삶의 질 분야 4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삶에 대한 만족도 60.5점 도내 최고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앞서 말한 주관적 웰빙 중 인지적 요인을 말한다. 소득·교육·건강 등 조건이 같거나 차이가 있어도 느끼는 행복감이 다르므로 행복감이나 삶의 질에는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 옥천군은 60.5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내 11개 시군 평균은 57.6점이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 61.1점 도내 최고

정확하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즉 지역생활 만족도를 나타낸다. 지자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반영된 지표인 셈이다.

이 항목에서도 옥천군은 61.1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균은 57.1점이다.

어제의 행복 59.6점 도내 3위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지표로 ‘긍정정서’라고도 불린다.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다.

옥천군은 59.6점을 얻어 괴산군(61점) 제천시(60.4점)에 이어 도내 3위로 측정됐다. 평균은 58.8점이다.

어제의 걱정 46.2점 도내 최저

삶과 지역생활 만족도, 행복감은 높았지만, 걱정은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 일상생활에서 걱정이나 우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지표인 ‘어제의 걱정(부정정서’로도 불린다)’ 항목에서 옥천군은 도내에서 가장 낮은 46.2점으로

평가됐다. 충북 지자체 평균은 49.8점이다.

긍정정서와 함께 OECD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옥천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행복감은 자주 느끼되 걱정이나 우울감은 가장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도내에서 옥천주민의 삶의 질이 가장 높다고 스스로 평가한 셈이다.

개인 차원의 주관적 평가를 모은 것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정확한 요인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옥천군에서 시행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시책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평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점이다.

전정표 주민기자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생활 만족도	어제의 행복도	어제의 걱정
전체	57.6	57.1	58.8	49.8
청주시	57.5	57.3	58.9	50.1
충주시	57.3	57.1	58.9	50.7
제천시	59.5	58.5	60.4	48.0
보은군	57.4	54.9	56.9	50.4
옥천군	60.5	61.1	59.6	46.2
영동군	56.4	56.3	57.6	46.7
증평군	57.7	58.4	58.6	48.9
진천군	55.9	53.9	57.2	52.4
괴산군	58.4	58.2	61.0	47.2
음성군	56.8	54.7	58.8	51.0
단양군	55.2	54.6	54.7	49.2

출처 : 2020 충청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2020 충북 사회조사, 무엇을 담고 있나〉

‘삶·생활 만족도’ 1위, 이유 있었다

‘2020 충북 사회조사 보고서’에는 옥천군이 1위를 차지한 주민 삶의 질 관련 부문 외에도 가족 보건 소득 환경 복지 등 11개 부문 107개 항목에 대한 각 시군 주민들의 평가가 들어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한번 들여다보자.

원만한 가족관계와 건강한 가족관

가정이 평안해야 삶이 행복한 법이다. 옥천군민들은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각각 도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유대감을 엿볼 수 있는 식사 빈도에서도 매일 1끼 이상은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는 답변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부부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1개 시군 평균과 같았으나, 배우자에게 솔직한 의견 표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47만7000원(평균 61만원)으로 11개 시군 중 3번째로 낮았으며, 다문화가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47.7%로 평균 40.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76.3점으로 괴산(79.4) 음성(76.5)에 이어 3번째였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높아

지역에서의 생활만족도 1위라는 성적에서 알 수 있듯 옥천군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나 쓰레기, 방치된 차와 빈 건물이 가장 적다고 답하는 등 주변 환경이 도내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다. 수질과 토양은 도내에서 가장 양호하고 대기·소음·녹지환경도 각각 3~4번째 양호하게 생각하는 등 환경 체감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는 괴산군에 이어 2위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았다.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도내에서 가장 적었으며,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두려움도 2번째로 적었다.

불량 청소년도 2번째로 적고, 기초질서를 안 지키거나 다투는 사람도 3번째로 적다고 생각했다. 가정·학교·직장·사회 등에서의 성차별도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주민의식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평가한 것.

사회통합 분야 중 지역 인심과 관련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1위이며, 공동체 의식도 항목별로 평균을 10~20%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게 인식했다.

소득 만족도는 증평 괴산 진천에 이어 4위였으며, 여가 생활 만족도는 5번째였다.

평생교육 참여율 등 개선 필요 분야도

옥천주민들은 이처럼 원만한 가족관계와 만족스러운 소득, 적정 수준의 공동체 의식과 주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에도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스스로 삶의 질 분야 1위라 평가한 것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물론 모든 지표가 이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급한 개선과 대책이 필요한 분야도 몇 개 눈에 띈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평균에 훨씬 못 미쳤으며, 향후 참여의향도 3번째로 낮았다. 사회안전 분야·시민의식과 관련된 환경실천 분야·장애인 차별 정도도 평균 이하였으며, 정기적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보은 영동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전정표 주민기자

〈2015~2020 충북 사회조사 비교〉

2015년부터 비교해 보니... 대다수 항목 순위 상승

충청북도는 2009년부터 사회조사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인구 등 객관적 통계 자료 위주로 작성되다가 점차 주관적 조사 자료가 추가되었다. 삶의 질 관련 분야 4개 항목도 2020년 추가됐다. 2019년까지는 ‘주관적(전반적 생활) 만족도’만 조사했다. 또 변화 폭이 크지 않은 분야는 한 해씩 띄우는 격년 조사로 진행됐다.

2015년 조사부터 살펴본 결과, 옥천군은 대다수 분야 항목의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위를 맴돌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4위로 순위가 약간 올랐으며, 하위권이었던 소득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 순위도 2019년부터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중·상위권이던 수질·토양 등 환경 체감도와 쓰레기·방치차량 등 주위환경 평가 분야는 최상위로 올랐으며, 정주 의사 즉 10년 후까지 지역에 살 것이라는 응답도 2017년 4위에서 2019년 2위로 올랐다. 지역 내 성차별 평가와 근로여건 만족도 분야 각 항목도 2019년부터 최상위권으로 올랐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꾸준히 1위를 유지했다.

옥천주민들은 이처럼 지역 행정서비스와 편의

시설, 일자리 및 근로여건, 소득 등 분야에서 타 지자체 대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상위권을 유지하던 시민의식 관련 환경보전 실천 분야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으며, 평생학습 관련 지표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꾸준히 상승하던 여가활동 만족도도 5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순위만으로 비교를 하다보니 소위 ‘통계의 착시’로 불리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눈에 띄었다. 지표(점수)는 이전 조사보다 낮아졌는데 순위는 오히려 올랐다거나(또는 그 반대이거나) 하는 항목들이 그것이다.

‘소득만족도’ 항목이 하나의 예가 될 듯하다. 5점 만점 조사에서 2018년 2.79점, 2019년 2.75점, 2020년 2.74점으로 점수는 계속 낮아지는데 순위는 거꾸로 11위-8위-4위로 올랐다. 다른 지역 만족도가 더 낮아져서 생긴 현상이므로 옥천군이 그만큼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질적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므로, 옥천군에서도 각 항목 순위보다 지표

의 변화와 추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정표 주민기자

주요항목 도내 순위 변화

항 목	순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관적 생활만족도		5	5	6	4	
여가활동 만족도	6	6	4	2	2	5
소득 만족도				11	8	4
의료서비스 만족도		1		1		1
성차별 종합평가		7		3		1
수질 환경 체감도		3		1		1
토양환경 체감도		5		1		1
대기 환경 체감도		3		2		3
소음·진동환경 체감도		4		2		3
녹지환경 체감도		4		2		4
*어둡고 후미진 곳 많다		8		9		11
*쓰레기 많고 지저분하다		10		10		11
*방치차량·빈 건물 많다		9		11		11
*불량 청소년 많다		6		9		10
*기초질서 안 지킨다		10		10		9
*다투는 사람 많다		6		9		9
일자리 만족도	11		11		3	
하는 일 만족도	5		9		4	
근로여건 만족도	7		9		2	
임금 만족도	6		6		2	
복리후생 만족도	10		11		1	
근무시간 만족도	6		11		4	
지역 정주 의사			4		2	

* 표시된 ‘어둡고 후미진 곳 많다’, ‘쓰레기 많고 지저분하다’ 등 항목이 11위라는 것은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11개 시군 중 가장 적다는 의미임.

지역현안 해결 위한 옥천군 광폭 행보 눈길

김재중 군수, 정세균 총리 · 한정애 환경장관 등 잇따라 면담
대청호 · 옥천박물관 · 간호인력관련법 · 농민재난 지원 등 건의
최응기 부군수도 임태영 · 도종환 의원 만나 적극 협조 요청



김재중 군수를 비롯한 옥천군 전체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김 군수가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옥천군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중 군수는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관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현안은 △대청호 규제 완화 및 수변구역 해제 △옥천박물관 건립사업 △지역 공공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 등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언뜻 옥천군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 공공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충북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염

두에 둔 건의라는 해석이다. 지역 간호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도 바로잡고 충북도립대 학생 수를 늘려 지역 청년인구 문제 돌파구도 마련해 보자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정 총리 면담 후 김 군수는 "지역 현안들을 잘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주셨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6일에도 청산면 대덕리 소재 열분해 유화연구시설인 (주)에코크린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수변구역 해제, 친환경 도선 운항,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대청호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도 행정안전부를 찾아 이평지구 낙석피해 예방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설명과 함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에 최응기 부군수도 2월 24일 국회에서 충북 출신 임태영·도종환 의원을 만나 옥천박물관 건립 등 사업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옥천군 전체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적극적 분위기는 각 부서에서도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현안 해결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정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히 느낌이 좋다. 직원들 모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설마 안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정표 주민기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온힘'

집합금지 · 영업 제한시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

옥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른 적극 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옥천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은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5일까지 휴·폐업 상태를 제외한 관내 미신청 211개 업소를 파악해 1:1 전화상담 등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신청을 희망하는 61개 업소에 대해 집합제한(금지)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으로 신청을 도왔다.

특히, 지난 2월 10일 기준으로 관내 916개 업소 중 705개 업소만 지원받았지만, 군의 지원에 힘입어 버팀목자금 접수 기간 동안 총 766개 업소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원면 신흥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덕분(75·여) 씨는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지 몰라서 새희망 자금은 못 받았는데 군에서 신청방법과 관련해 전화가 오고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업소가 빠른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숙박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그 외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옥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옥천형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현장.

야속한 코로나에 지역축제 줄줄이 온라인 판매행사 대체

포도 · 복숭아 · 참울축제 등 비대면 행사 전환... 제34회 지용제 10월 연기

매년 희망찬 봄기운이 온 대지 위로 피어오르면 봄축제들로 지역에 활력이 넘쳐났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지역 대표축제가 2년 연속 연기·취소되거나 비대면 행사로 대체됐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 듯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옥천 지역의 봄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대표 축제인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옥천군은 지난달 18일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2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올해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구 37번 국도변에는 이렇게 벚꽃이 만발했지만, 야속한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정된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와 함께 '제13회 옥천참울축제'도 온라인 판매행사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25일 축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를 온라인 판매행사로 대체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내면의 '제12회 옥수수감자축제'도 지난달 31일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축제를 온라인 판매행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을 기리는 문학축제 '제34회 지용제'는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진정됐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대면 축제를 당장 진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을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군은 올해 10월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지용제가 완전 대면 축제형식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축제로 전환하고 상황에 따라 비대면·대면 형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구읍 벚꽃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개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올해부터 군 주관으로 처음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유채꽃축제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옥천읍에 거주하는 이 씨(42)는 "지난해보다

코로나 확산세가 약해져 올해는 지역의 봄축제들이 열리길 학수고대했는데 잇따라 취소 소식이 들려서 너무 아쉽다"며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종식돼 예전처럼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축제가 취소·연기되면서 관련 농가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묘목축제와 같이 비대면 축제 기획, 온라인을 통한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옥천우체국,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업무협약식을 추진했다. 군은 우체국쇼핑몰 제휴 채널을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해 판로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판매·소비 문화 창출을 선도해 지역 농특산물의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몇몇 축제들은 취소하거나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축제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농가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다각도의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성면 두릉리 일대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새활력 불어 넣는다

'새뜰사업' 도내 유일 농촌 지역 6회 연속 지정... 15억 2400만원 들여 빈집 철거 등 추진

옥천군은 빈집과 노후 주택 등으로 생활 여건이 낙후된 청성면 두릉리 일대에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평가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충북도와 시·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 컨설팅, 사전평가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 15억 2400만원(국비 13억 7700만원, 도비 1억 47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사업비는 추후, 현장컨설팅 및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신규 도입된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2017년까

지 추진되다가 2018년 중단 이후 2019년부터 다시 신규 추진됐다. 특히,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선정에 이어 농촌지역에서 6회 연속 선정된 곳은 충북도내 옥천군이 유일해 의미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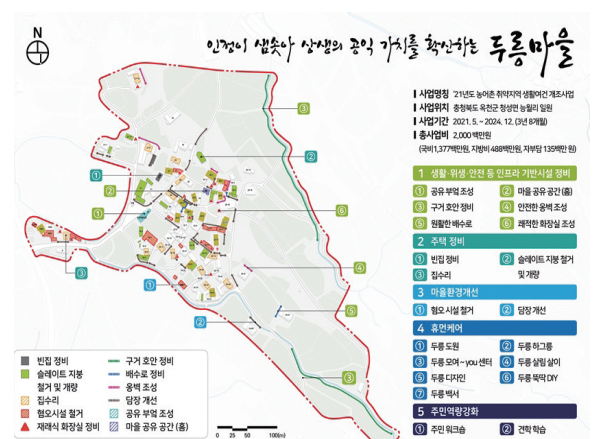
사업대상은 청성면 소재 두릉마을이며, 생활위생안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이 추진된다. 세부 사업으로 공유부엌 설치, 구거호안 정비, 옹벽 조성, 배수로 설치,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 정비, 돌봄커뮤니티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두릉리의 경우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이상 송전탑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마을발전이 저해되고, 주민건강이 위협받아 왔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설립제한지역 환경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던 지역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생활,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종 군수는 "청성면 두릉리 마을의 취약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 주민들이 계획부터 직접 참여한 사업인 만큼 이번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성면 소재 두릉마을 사업 계획도.

군내 복지시설 3개 축으로 재편된다



지난 2일 통합복지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사진은 개소식 장면.

지난해 7월 매입계약을 거쳐 말끔하게 리모델링된 통합복지센터가 4월 2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성격이 약간씩 다른 복지시설의 집적화 시도는 처음인 만큼 주민들 기대도 남다르다.

한편, 그 이전인 3월 11일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분리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와 함께 같은 부지 내에 2022년까지 세워질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면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중심이었던 취약층 대상 옥천군 복지시설 지도가 확 바뀌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군소기관들이 모인 통합복지센터 등 3개 시설로 복지 축이 새로 짜이게 되는 것.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옥천군만의 차별화된 복지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시설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미리 알아보자.

통합복지센터

이번에 개관한 통합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시니어클럽·지역자활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5개 기관이 입주했다. 상근 인력 130여명에 1일 평균 이용객은 5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층에는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활·다문화가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는 '홍보판매코너', 자활커피공방 '카페프란스'가 배치됐다.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과 장난감도서관 '맘쓰허그', 놀이체험실 '동동놀이터'가 설치됐다. 엄마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아이는 동동놀이터에서 놀다가 함께 맘쓰허그에서 장

난감을 빌려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선히 그려진다. 맘쓰허그와 동동놀이터는 주민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 옥천군에서는 이 두 곳이 앞으로 통합복지센터의 시그니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층부터 7층까지는 각 기관의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작업장 등이 위치했으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향수할매식당(도란도란식당)도 3층에 자리잡았다.

성격과 이용자층이 각기 다른 기관이 한 건물에 자리잡게 되는 만큼 옥천군은 앞으로 이곳이 지역 내 복지 허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김재종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당초 삼양리 189-1 일원(구 종축장 자리)에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장애인체육관(반다비체육센터) 공모 선정 등 상황변화로 인해 2022년으로 미뤄졌다. 옥천군은 체육센터를 복지관과 함께 조성해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및 재활치료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는 각각 지상 5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언어 등 각종 치료실, 심리안정실,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실, 직업·일상 등 훈련실, 식당 및 카페 등 시설이, 반다비체육센터에는 수중운동실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이 각각 설치된다. 두 시설은 서로 연결되는 구조로 지어져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특히 체육센터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장애인이 우선이니만큼 비장애인은 장애인 사용 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두 시설이

완공되면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일상활동 근거지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옥천군지체장애인협회 옥동일회장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복지관이 분리되고 체육센터까지 함께 마련된다면 옥천군 장애인복지사에 일대 획을 긋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관

2023년 1월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은 개관 20년 만에 『노인복지관』으로 명칭과 역할이 바뀌게 된다.

2003년 12월 군비 17억5000여만원과 국비 4억9000여만원, 도비 2억8000여만원 등 총 25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개관했다. 당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복지관은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06년에는 청산분관이 생겼고, 2016년에는 지상 2층 977.36㎡ 규모의 별관이 세워졌다.

2019년 기준 노인·장애인 회원 약 3000명이 등록돼 있으며, 1일 평균 사용자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관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들이 불편해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빨리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애인복지관이 분리돼 나가면 이곳은 오롯이 노인만의 공간으로 남게 된다. 공간적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된 노인들이 훨씬 폭넓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정표 주민기자



2022년 준공 예정인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조감도(위), 통합복지센터에 설치된 동동놀이터(아래).

“주말에도 옥천군민도서관에서 봄꽃처럼 향기로운 책으로 기분 전환 하세요”

군민도서관 4일부터 일요일도 개관 실시

봄꽃처럼 향기로운 책이 가득한 옥천군민도서관이 코로나19 여파로 봄나들이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주말에도 문을 활짝 연다.

군민도서관은 군민들에게 독서 및 문화 활동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일요일도 문을 연다. 당초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 22일 임시 휴관 시행 이후 1년 여년 만에 일요일 개관을 다시 재개한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정부의 사회

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맞춰 열람 좌석의 50%를 개방한다.

군민도서관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별도의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발열 체크와 2m 거리두기 유지, 1일 1회 자료실 및 교육실 등 실내 주요 시설 소독, 대출 및 반납 도서에 대한 책 소독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

도서관의 한 이용자는 “코로나19로 아이와 함께 주말에 여행과 미술관 관람 등이 어려워서 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주말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일요일에도 개관한다니 기쁘고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시설도 정상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성일 평생학습원장은 “현재도 군민들에게 최적의 독서 환경 제공을 위해 수시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주말에 보다 많은 군민들이 코로나19에 안전한 환경에서 책을 통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 개관 및 운영 관련 문의는 담당자(☎043-730-3612) 또는 자료실(☎043-730-3615, 3617)로 연락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 참여자 모집

옥천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를 개소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위 치 :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49(청성보건지소 내)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42(청산보건지소 내)
- 대 상 : 청성·청산면 지역주민
- 제공서비스

구 분	대상자
· 인지선별검사	· 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진단검사	·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문등록 및 인식표 배급	· 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60세 이상 지역주민
· 기억키움 교구대여	· 60세 이상 지역주민
· 안심등불 운영	· 기관 및 단체
·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군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진단자
· 치매환자 쉼터운영	· 치매진단자
· 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족

● 문 의 : 청산분소 "기억키움터" 730-2063~2064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상담 지원	서민 금융·법률 지원	취업·여성 지원	복지·생계 지원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청소년상담 1388 (전화상담/사이버상담/ 문자상담)	서민금융콜센터 139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여성세로일하기센터 1544-119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모바일 상담센터 다들어줄게 (카카오톡/페이스북/앱/ 1661-5004 문자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긴급전화 1366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접종 하루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자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혼잡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 내일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뒷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합니다.

접종 당일

집에서 출발 전

-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열이 난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 준비한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러 갑니다.
-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접종장소 도착

- 접종 장소에서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예방접종 예약을 확인합니다.
- 체온을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예진표 작성

- 예진표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예진(의사 상담)

- 예진(의사)와 상담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예방접종

- 접종실에 가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관찰실 대기

- 예방접종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15~30분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집으로

- 관찰실에서 대기가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귀가하여 무리하지 않습니다.
- 2차 예방접종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접종 후

집에서

- 예방접종 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구분	예방접종 부위	전신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과 처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증 부어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서 해당 부위를 냉찜질하기 팔운동을 하거나 팔을 움직이기 해열·진통제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영증 제거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기 옷을 가볍게 입기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 준비

- 대부분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나,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만일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 2월26일과 2월27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최초 물량 접종은 사전에 접종대상자 등록과 접종동기가 완료되었기에, 예방접종 전날 안내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2021.03.16

(재)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기부내역

정기기부

문화광고마을
김재중
최희열
김성중
채희성
윤양규
천세현(동아서적)
김희연
박노경
강호연
정대희

정지승
김진숙
황상철
박인정
이규순
민경천
이상숙
차은희
배광호
백미희

농협은행 옥천군지부
- 정진국
- 서경범
- 김강래
- 김규순
- 김소희
- 안혜선
- 송윤진
- 광애숙
- 한봉이
- 임정훈
- 박지원
- 김광환
- 김장범
- 김세민
이상우
이광섭
김정순
유성원
임순혁

곽경훈
이혜란
김규숙
음미경
천영희
임홍순
이점수
정재복
유병천
임인순
송광영
이순구
김윤주
방수혁
이필국
군청이영환
김연철
농업회사법인(주)금호식품
김정민
해운물류(주)

조경현
길통중의학과
정지현
손기찬
윤승현
산수코리아
최광천
전한기
조광휘
조원희
한길순
윤승재
태운호
윤형식
김호중
이명용
조지형
김용환
정만영
천강선

김덕수
임경목
임경준
전은주
김재관
박종완(SK텔레콤)
(주)대산철강
유재구(학우문구센터)
김중운
김수연
이유미
현순예
주옥희
조규철
이은아
조병찬
양순옥
이호걸
송림사
김흥권

김재영
옥천군산림조합
- 권영건
- 구재희
- 송석현
- 박현보
- 이한솔
- 박응수
- 김응구
- 조재환
- 정진만
- 임이슬
- 염현숙
- 김현정
- 박선용
- 오혜진
정진만

일시기부

은봉기

기부 누적액 2021. 3. 15 기준
12,376,207,805원

옥천 공동체허브 '누구나' 본격 운영 돌입

공유 사무실 · 회의실 · 상담실 등 마련... 공간 제공 · 공동체 활동 컨설팅 등 지원

옥천 주민 누구나 이웃과 만나 소통하며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익 활동을 구상하고 실현해볼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옥천군은 지역 내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인 공동체허브 '누구나'의 개소식을 지난달 9일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공동체허브 '누구나'는 이름 그대로 지역사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필요할 경우 각종 공동체 활동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천읍 장야애뜰길 62번지에 연면적 491.2㎡, 지상 1층 규모로 공유 사무실, 방송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코워킹실 등을 갖춘 시설을 준공했다.

특히, '누구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주민들도 안전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에 문턱을 없앴고, 시선을 막는 벽과 칸막이를 최소화해 공간별 활동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개방'과 '소통'이라는 '누구나' 공간의 핵심가치를 실제 공간의 모습으로 구현했다.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대표이사 임경미)에서 공동체허브 '누구나'를 위탁 운영하며, 정순영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상주인력이 있어 공간제공 및 컨설팅 등 공동체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작은 회의와 교육,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식재료만 준비하면 직접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공유부엌이 마련돼 있으며, 오디오 녹음, 영상 촬영이 가능한 마을방송국 시설·장비도 갖춰져 있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 모임들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일에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 중간 지원 조직인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센터장 송기선)가 공동체허브 누구나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과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교육, 홍보, 사업 계획수립 지원 등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순영 공동체허브 누구나 센터장은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누구나'도 완전 개방이 쉽지 않다"며 "상황이 나아질 길 지켜보며 완전 개방

의 그 날까지 주민들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군수는 "공동체허브 '누구나'는 지역사회 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지역주민이 자치와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다"며 "앞으로 이곳에서는 각종 공동체 활동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내에서 주민 스스로가 만든 공동체는 270여 개로 옥천군은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옥천공동체 허브 '누구나' 전경.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참여해주세요!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만 담아주세요~

대한민국 페트병, K-PET로 시작합니다

바뀐 페트병 분리방법

육아부담 확 덜어주는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이용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 이용시간 : 월~금 09~18시, 1시간 단위(최대 월 80시간)
- 제공기관 : 광진어린이집(옥천군 옥천읍 향수2길 29-10, ☎733-7875)
- 서비스단가 :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 본인부담 1천원)
- 이용절차

구분	단계별 이용 방법	부모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전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아이사랑 앱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제공기관 방문시
	[제공기관 방문등록] 광진어린이집 (옥천읍 향수2길 29-10)	회원가입 (공인인증 필수)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련서류 제출 필요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신청] 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선택 ↓	
	[전화신청] 광진어린이집 ☎733-7875	↓ 시간제보육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이용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결제) ↓	

● 문의 : 옥천군 복지정책과 여성보육팀(☎ 730-3622 / 3624)



“자전거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타세요”

전 국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사망·후유장해 진단시 최대 1500만원 지급

옥천군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 보험 가입에 나서며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사업은 지난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군의 대표적인 ‘옴’ 안전 정책으로 지난해 18명의 군민이 22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옥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가입되는 보험으로, 올해 보험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옥천 내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20~6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형사 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고의적이거나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 자전거 사고 시에는 지급받지 못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DB손해보험(주)(☎1899-7751) 또는 도시교통과(☎730-3556)로 하면 된다.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군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현대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단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안전책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전거를 조심히 타는 게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자전거 타기 캠페인 자료 사진(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사진(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함께하면 행복 두 배" 옥천군 행복나눔 연합모금

●「옥천군 행복나눔」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옥천 만들기를 위해 옥천군,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한 모금사업입니다.

● 옥천군 전용후원계좌

농협 301-0206-1076-71, 예금주 충북공동모금회(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천군행복나눔 기부내역 : 2017.4.17.~2021.2.28. / 367,325,230원

- 2017년 23,303,020원 / 2018년 61,790,610원 / 2019년 92,190,850원
 - 2020년 158,736,550원(코로나19 성금 중 69,830,520원 포함) / 2021년(31,304,200원)

● 참여문의 :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43) 732-0120, 732-0141 F. 043-733-0120

정기기부

강병갑	김병응	김종수	박용운	신동수	이명숙	전인호	최승희	농촌지도자협의회	옥천사무기	태경콘크리트(주)
강성호	김상열	김종열	박유리	신상수	이문순	전재상	최연호	대도식품	옥천생생검살	하나재가복지센터
강유진	김서희	김종호	박윤철	안은영	이문식	전향우	최유미	대산에코산업(주)	요고밸리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노동조합
강정옥	김선분	김주희	박은용	양보나	이미현	전형조	최은희	돌람산우렁쌈밥	우리꽃방	한밭전차방
계성희	김선자	김춘홍	박정미	양현화	이보나	정규영	최하영	뜨끈뜨끈해장국·감자탕	원각주유소	한여농군서면협의회
고숙경	김성근	김태은	박지영	어용순	이봉혜	정길중	한미숙	문화광고마을	의료법인힐링의료재단옥천성모병원	향수어린이집
공영환	김숙자	김해동	박진성	여영우	이선미	정순점	한상길	미림병원	장아어린이집	형근설비사
곽길순	김순정	김해명	박찬정	염응훈	이선우	정영분	한영수	바르게살기운동군서면위원회	정보철강(주)	
곽상혁	김신애	김현숙	박현숙	오한두	이성기	정우영	허만호	법무사항성권	주식회사 승진	
곽인상	김연용	김혜림	박형용	우명수	이성학	정은성	홍종선	부모사랑요양센터	(주)교동식품	(주)일몰류옥천터미널(김상배)
권명길	김영순	김홍준	박홍래	우을순	이시창	정인재	황두현	산내들도매유통	(주)명가식품	(주)미래리서스
권미란	김옥현	김효중	박효선	유경순	이애련	정자현	황승일	삼기능장	(주)삼성전자옥천점	(주)송진금속
권숙희	김완기	김희연	박희용	유인태	이은미	정종운	개나리아린이집	새마을지도자군서면협의회	(주)옥천향수식품	(주)옥천성테크
김종수	김용환	노은수	배경호	유정미	이은영	정지영	건설공사	색동유치원	(주)옥천향수식품	(주)코앤즈
김현주	김윤주	노지숙	배준호	유제환	이은주	정해영	경민병원	서원건설(주)	(주)창조	(주)창조
김경범	김은숙	도경애	서명아	윤소순	이장무	정화동	경성만두요리전문점	성진하우징	(주)창조	청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경화	김은옥	류충열	서은주	윤소옥	이재현	조계자	구미농원	수성건설(주)	(주)은성테크	청성농장
김규정	김은정	문무광	서정기	윤은영	이정희	조군호	국제종합기계옥천대리점	수재푸드가스	(주)코앤즈	충북농원영농조합법인
김금자	김정민	박갑수	서진석	윤인경	이종숙	조수형	군서귀농회	신수농원	(주)창조	충북농원영농조합법인
김대훈	김재관	박강성	설주경	윤현구	이동세	조영복	농업회사법인에이치비주식회사	신흥산업가스(주)	친환경우리소영농조합	옥천동물병원
김동연	김재숙	박미래	성낙중	이규완	임락재	조주옥	농업회사법인(주)공일농원	아방데코	케어앤드옥천방문요양센터	옥천문화원
김동엽	김재종	박민서	소진숙	이규태	임갑순	조희정		양수리 주연식당		
김동현	김정숙	박민숙	손민정	이금숙	임종호	진석원		어머니와장독대		
김명식	김정숙	박병훈	송광영	이기운	장경식	차태복		에스에이치건설산업(주)		
김미연	김정옥	박수진	송호웅	이대석	장은정	차해훈		남부자동차공업사		
김미정	김중범	박영빈	신근성	이동하	전길호	천성모		농업회사법인(주)공일농원		
김병구	김중석	박영진	신금선	이만수	전우찬	최문호		농업회사법인(주)공일농원		

일시기부

고명수	김민동원
금기국	군서면의용소방대
김기천	대화건설(주)
김동주	옥천군여성단체협의회
김진진	청산고 3학년 1반
김환식	청산장석
박선옥	청산노인복지센터
서동선	청성면 이장협의회
설용선	(주)하나그린
이영숙	(주)다원산업개발
이희구	한농연 군서연합회
정성기	(주)KMP
조문순	

지원 내용

생계비 : 김○○ 외
37가구 15,200,000원

“문화예술 공연 즐기며 코로나로 지친 일상 위로받아요”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선정... 8~11월 4개 공연 예정



지난해 진행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중 뮤지컬배우 전수경·최정원·홍지민의 3-DIVA 공연 사진.

옥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전달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옥천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난 2월 18일까지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공연장 시설현황, 소외계층 초청계획, 공연 활동계획, 사업인지도 상승 계획 등을 심사했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

로 추진한 온라인 공연과 관객들을 위해 제작한 방역 홍보물, 기능보강사업으로 개선된 공연장 시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옥천군은 애니메이션 with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음악으로 그리는 7가지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K-POP Drama 클래식, 춤추는 미술관 등 4개의 공연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일정을 잡아 주민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애니메이션 with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겨울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우리말 가사로 만나는 가족 오페라로 풀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연주와 무용, 3D 애니메이션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공연으로 펼쳐진다.

또한, 7가지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는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인 휴머니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작품을 통해 전하려 했던 삶의 의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음악과 미술, 미디어 아트, 인문학 등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관객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이와 함께 K-POP Drama 클래식은 25인조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아티스트인 필립 윌트, 한국의 대표 바리톤 이응광 씨가 화려한 라인업으로 참가해 한국의 유명 드라마 음악을 클래식한 감동으로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춤추는 미술관은 춤과 음악을 통해 시각 예술과 무대 공연의 교집합을 찾아 생각의 한계, 상상의 틀이 깨지는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스트리트 댄스를 기반으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 쇼를 펼친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더불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충북특화공연작품개발지원사업 등 3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2억 39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해 12회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황수섭 문화관광과장은 “작년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이 성과를 본 것 같다”며 “올해도 철저한 방역과 함께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문예회관에서 질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수준 제고 및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다.

지역 문화유산 매력에 퐁당... ‘생생문화재 사업’ 본격 운영

‘옥주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과정’ 등 4개 프로그램 운영

옥천군은 ‘2021년 생생문화재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은 옥천군 대표 역사 인물인 조현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현이 남긴 문화유산의 연계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옥주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5~10월에는 1박 2일 가족 체험 프로그램 ‘슬기로운 옥주생활’과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의병들이여, 옥천으로 집결하라!’로 주민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이달에 진행되는 ‘옥주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과정’은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의지가 높은 주민들에게 개인적인 활용을 넘어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마을의 스토리와 체험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옥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개념,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수행단체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buk.re.kr) 및 전화(043-279-5461~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생생문화재 사업 모습.



다 같이 돌자 '옥천 구읍' 한 바퀴... “풍부한 문화유산 간직한 옥천 구읍 여행 즐겨요”

옥천향교 · 정지용생가 등 SNS 포스팅 여행 이벤트 진행

옥천군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옥천 구읍(옛 시가지)을 배경으로 SNS 포스팅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구읍의 주요 관광지 7곳을 둘러보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여행 수기를 올리면 된다.

여행 코스는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시작으로 옥영수생가, 옥천향교, 교동저수지, 지용문화공원, 옥주사마소, 정지용생가 등이며, 여행지마다 2장씩 총 14장의 사진이나 총 길이 60초 이상의 영상을 편집해 올리면 된다. 이와 함께 100자 정도 분량의 소감도 작성해야 한다.

군은 사진과 소감 등 조건을 충족해 여행 수기를 올린 관광객에게 지역 관광 홍보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매달 3명을 추첨해 옥천전통문화체험관 4인실 숙박권도 증정한다.

참여 대상은 옥천 관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들이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군민도 참여할 수 있지만, 기념품 등 제공은 제외된다. 기념품 신청은 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오는 10월까지 주말, 휴일, 공휴일에는 하루 두차례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2시 10분에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는 투어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긴 시간동안 역사와 문화가 쌓여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옥천 구읍”이라며 “지난

해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 개관하면서 볼거리에 체험거리가 더해졌고, 주변에 맛집과 카페가 늘어나면서 전통과 현대문명이 어우러진 거리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읍은 조선 시대 옥천군 관아가 있던 곳으로 1917년경 군청이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옥천읍 삼양리로 이전되면서 구읍으로 불리게 됐다. 문화유적이 풍부하고 인근 교동저수지, 지용문화공원 등 야외 시설과 어울리면서 최근 반나절 나들이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4월 봄꽃 버스킹 공연일정

공연일	시간	장소	공연팀	비고
4월 3일(토)	14:00	지용문화공원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옥천지회 (통기타, 색소폰, 시낭송등)	박정운 010-8455-8114
	15:30	전통문화체험관	예울림 (통기타, 색소폰, 시낭송등)	김용주 010-4127-2168
4월 10일(토)	14:00	선사공원	한일예술기획 (밴드 공연)	김육성 010-5465-0391
4월 17일(토)	15:00	전통문화체험관	옥천음악협회 (성악, 기악)	송애란 010-4007-5213
	15:00	선사공원	옥천색소폰합주단 (색소폰연주)	유광중 010-7422-6212
4월 24일(토)	15:00	지용문화공원	영원버스킹 (통기타)	이종순 010-5463-4993
	16:00		옥천군체조협회 (댄스)	한은숙 010-9458-1861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으로 전기요금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인행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연료비 + 기후환경비용 + 기타비용

개정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연료비] + [기후환경비용] + 기타비용

연료비조정요금 +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전기를 만드는 연료의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금이 변동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도입되면 우리집 전기요금 어떻게 바뀌나요?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2021년 1분기(1~3월)에는 최근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kWh 당 3원이 인하됩니다.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저탄소 사회로 가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기후환경요금으로 요금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4.5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0.5원 +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신) = 기후환경요금 단가 5.3원

기후환경요금으로 인해 증가하는 요금은 1kWh당 0.3원(석탄발전 감축비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과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존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분리만 하였기 때문에 요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 kWh 당 단가

※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123,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관할 한전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신부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연간 48만원*)
* 자부담 20%(9만6천원)만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담 20%
- 제출서류 : 신청서, 임신 → 출산 증빙서류(임신험인서, 출생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구입방법 : 쇼핑물 회원가입(신청인)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 및 결제(신청인) → 꾸러미 발송(온라인쇼핑몰)

염진세 축제위원장 ‘온라인 묘목 판매행사’ 성공 이끌다

지난해 이어 ‘온라인과 함께 하는 묘목 판매행사’ 성황리 종료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판로 확대

‘온라인과 함께하는 옥천묘목 판매행사’가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5일부터 개막된 행사는 전국에서 묘목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온라인 주문도 급증하면서 비대면 행사 개최로 인한 농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옥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고객과 지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판매행사로 준비한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회 염진세 위원장(사진)의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

염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전시 판매행사가 힘든 상황에서 작년부터 축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올해도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옥천군의 다양한 홍보활동 덕택으로 지난해 행사 때보다는 매출이 약 20~30% 정도 늘어나 기존 대면축제 진행과 비교해 농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온라인과 함께하는 옥천묘목 판매행사 흥행을 위해 묘목축제 홈페이지를 활용해 농원별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과 연계해 홍보를 지원했고, 직접적인 온라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행사 알리기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인 ‘옥천사랑상품권’으로 묘목을 구매하면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20% 할인 받을 수 있는 행사도 병행 추진해 고객들에게 큰



염진세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장

호응을 얻었다.

염 위원장은 “옥천 묘목은 기름진 땅에서 정성과 노하우로 건강하게 자라 전국 어디서나 적용이 용이하고 활착률이 좋은 것으로 품평이 자라해 매년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올해는 할인행사도 추가로 진행해 구매 건수가 증가한 거 같다”며 “특히, 지난해 기상조건이 악화돼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물동량이 부족해 판매량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온라인 판매행사를 통해 새로운 판로 확대 및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염 위원장은 “지역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SNS나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나 판매 활동이 익숙지 않아 그동안 온라인 판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올해 군에서 추진한 온라인 판매행사를 계기로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 판로에서 나아가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했다면 좋겠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수한 묘목 생산으로 내년에는 더욱 뜻깊은 축제를 선보일 테니 계속적으로 옥천묘목에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행사는 마무리됐으나 개별농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수한 묘목을 판매하고 있다. 염 위원장은 우수한 묘목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구매 노하우도 전했다.

염 위원장은 “좋은 묘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 한파로 동해(凍害) 입은 묘목인지 잘 살펴봐야 하고, 잔뿌리가 많고 줄기가 곧고 굳으며 가지가 균형 있게 뻗어있는 깨끗한 나무를 골라야 한다”며 “한 농원에서 사지 말고 70여 농원을 돌아다니며 각각 비교해 묘목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염 위원장은 복숭아 특허를 비롯해 지역 내 묘목농원 중 사과와 배 등 유실수 전문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9개 농원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을 이끌고 있다.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 연장기한 : 3개월 직권연장 (4월 말 → 7월 말)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 <http://www.wetax.go.kr>
- 문의 :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3)

옥천군 공유(일반)재산 관리 위탁 안내

- 수탁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위탁대상 : 군유 일반재산(토지 596필지, 건물 11동)
- 위탁사무
 - 위탁재산의 공부 점검 및 실태조사
 - 위탁재산의 실태조사 결과의 데이터 구축
 - 위탁재산의 대부 및 변상금 관리
 - 민원사항 처리
 - 유휴 재산의 발굴 및 활용 방안 제안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3274-2436)
옥천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043-730-3233~4)





이달의 영농

분 야	핵심기술 및 정보	분 야	핵심기술 및 정보
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 건전한 볍씨 및 육묘상자 준비, 종자 탈망작업 실시 • (볍씨 고르기 및 소독) 소금물 가리기, 볍씨소독, 싹틔우기 - 소금물가리기를 할 때 물의 비중은 메벼 1.13(물 20L+소금 4.2kg), 찰벼는 비중 1.04(물 20L+소금 1.4kg)가 적당함 • (못자리 설치 및 관리) 지역별 적기 파종, 적정 물 관리 및 온도 유지 	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화상병) 개화기 방제 1차살포(배·사과 꽃이 과수원의 80%개화 후 5일±1일) - 개화기 방제 2차살포(개화기 방제 1차살포 후 10일±1일) • (인공수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가 인공수분 효과가 높으며, 25°C 이상 고온건조한 날이 계속되면 지표면에 물을 뿌려줌
밭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류) 배수구 재정비, 붉은곰팡이병 발생 조건 및 방제 • (감자) 여름감자 심기, 퇴비 및 비료주기, 제초제 처리 • (고구마) 싹튼 후 물주기, 온도관리, 병해방제 및 추비시용 • (옥수수) 조기재배 옮겨심기 및 반축성 재배(비닐피복 재배) 적기파종 • (참깨) 적용약제 이용 종자 소독, 비닐피복 및 지역별 적기파종 • (땅콩) 종자 준비, 최아 및 지역별 적기파종 	특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3년생 이상 포장은 출아전 석회보르도액 500배액 상면 살포, 출아기에는 줄기점무늬병 약제 이용 병해 예방 • (느타리버섯) 봄철 버섯이 자라는 기간은 균상이 늘 축축하도록 습도 관리 • (약용작물) 제초, 웃거름주기, 지주 세우기, 배수로 정비 등 포장관리 철저
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채소) 봄철 강풍 및 황사대비 시설물 관리, 환절기 열과 등 생리장애 예방 • (노지고추) 아주심기 일주일 전부터 순화, 멀칭 및 지온확보, 역병예방 • (마늘·양파) 구비대기 관수, 흙담기, 벌마늘 및 양파 추대 예방 및 노균병 2차 방제 - 4월 상순부터 7일 간격 3회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 대면 최소화, 모임 자제 • (차단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AI 예방 차단방역 철저 • (가축관리) 환절기 적절한 환경유지 및 황사피해 예방 관리 • (사료작물) 하계 사료작물 파종 및 동계 사료작물 수확 준비 • (퇴비 부숙도검사)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가축분뇨 검사 (농업기술센터) • (양봉) 벌고르기, 분봉령 방지, 보온물 제거, 부저병예방 및 치료 등 봉군 관리 철저
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점검) 서리 등 저온피해에 대비하여 방상행, 미세살수장치 점검 - 이른 개화 대비 저온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 실천 		

※ 옥천농업기술지 2021년 4월호 전문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안남, 청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옥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자료실"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봄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시

옥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군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 위주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봄철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수리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자가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고장 부위별 정비 기술과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올해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지난 3월 2일 동이면 용운리를 시작으로 11월 4일 청산면 덕곡리를 끝으로 80회에 걸쳐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며, 대상 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분무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를 대당 1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으로 농가의 수리부담을 덜어 주고, 영농철 농기계 사전 점검을 통해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정(수리장소 : 마을회관)

회차	월 일	읍·면	리동	회차	월 일	읍·면	리동
14회	04월 02일	이원	강청2리	23회	04월 19일	군서	사정리
15회	04월 05일	군서	오동1리	24회	04월 20일	군북	환평리
16회	04월 06일	군북	감로리	25회	04월 22일	동이	현동리
17회	04월 08일	동이	가덕리	26회	04월 23일	안내	인포리
18회	04월 09일	안남	도농2리	27회	04월 26일	청성	구음리
19회	04월 12일	안내	동대리	28회	04월 27일	청산	효림리
20회	04월 13일	청성	귀곡리	29회	04월 29일	이원	대동리
21회	04월 15일	청산	대사리	30회	04월 30일	군북	비야리
22회	04월 16일	이원	의평리				



자연이 내린 신비로운 선물 "옥천참웃"

2021. 4. 20.(화) ~ 4. 30.(금)

행사기간 중 웃순 1kg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판 매	구 성 품	규 격	판 매 가
옥천군산림조합 043)732-7001(내선3)	웃순 (16cm이하)	1kg	20,000원
		500g	11,000원
옥천참웃 영농조합법인 043)732-5787	웃순 (16cm이하)	1kg	20,000원
		500g	11,000원
	웃나무	1kg	5,000원
	웃나무 껍질	1kg	15,000원

NAVER 옥천참웃 검색

문의 옥천군산림녹지과 043)730-3593

옥천군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기억키움터' 문 열다

옥천군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기억키움터'가 지난달 12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옥천군치매안심센터가 읍에 위치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산·청성면 주민을 위해 청산분소 개소를 결정한 것이다.

기존 청산 보건지소 건물을 단장해 운영하는 기억키움터에는 작업치료사 1명, 간호사 1명을 비롯한 5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치매 예방과 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됐던 청산면 주민에게 치매 인식개선,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 등 다양한 측면의 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억키움터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 만 6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치매 상담, 치매 조기 검진,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등 기억키움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기억키움터는 이용대상자를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비증상자'로 분류해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장비와 단계별 교구 등을 갖추고 전문 작업치료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구를 활용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인지치료 등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와 치매 가족 교실, 자조 모임을 통한 치매 가족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문등록, 인식표를 통한 실종 예방 사업과 접근성이 취약한 이용객을 위한 인지 교구 대여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이자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이인숙 과장은 "치매안심센터가 읍내에 위치해 청산·청성 주민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에 청산·청성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작년 12월부터 분소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기억키움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4~5월 중 평일 3일은 청산에서, 2일은 청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으로 6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두뇌야 놀자', 인지 강화 교실 '기억해봄' 등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억키움터상자 개별 대여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도 치매 예방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 주변인 중에서 늘 다니던 곳을 갑자기 생소하게 여기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지소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길 바란다. 치매 진단과 센터 방문에 두려워 말라"며 "정기적인 조기 검사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군수는 기억키움터 개소에 관련해 "청성·청산면 어르신들은 현재 옥천읍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청산 분소운영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안심, 행복 옥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9년 옥천읍 가화리에 옥천군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옥천군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약 10명의 관련 인력이 상주하며 치매 인식개선, 치매 조기 검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4월호 십자말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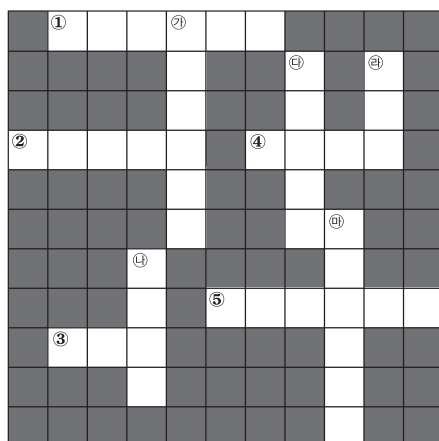
독자 퀴즈가 십자말풀이로 바뀌었습니다. 옥천소식 4월호를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아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로세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10명을 추첨해 상품권(2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과 요령은 옆의 '참여를 기다립니다'와 같습니다.

가로 열쇠

- ① 지역 교육에 뜻있는 분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옥천의 대표적 장학기관.
- ② 2020년 충북 사회조사에서 옥천군이 '삶의 만족도'와 함께 1위를 차지한 항목.
- ③ 2월 문을 연 지역공동체 허브 이름
- ④ 매년 이월에서 열리는 옥천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
- ⑤ 2023년 삼양리에 등지를 틀게 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세로 열쇠

- ⑦ 통합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장난감 대여 시설, 공식명칭은 '맘쓰허그'다.
- ⑧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옥천을 위해 진행하는 모금 사업. 『옥천군 ○○ ○○ 연합모금』
- ⑨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옥천군이 지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 ⑩ 매년 옥천과 청산향교에서 진행되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덕을 기리는 제.
- ⑪ 복지기관들을 한 곳에 모은 이번에 개소된 옥천군 복지허브 시설.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시, 사진, 그림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니 성함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원고매수 : A4용지 1매 또는 이내 (글씨크기 12pt)
- 마감 : 4월 20일(화)까지
- 원고내용 : 시, 수필, 그림, 사진(한 줄 사연) 등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kdh78119@korea.kr)
- 연락처 : 기획감사실 홍보팀(☎730-3065)

※ 옥천소식지 무료구독은 우편이나 전화, 옥천군청 홈페이지(www.oc.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3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김경희(동이면), 김지은(옥천읍), 김지현(경기도), 김현정(세종시), 박범용(음성군), 박한용(이원면), 배숙희(옥천읍), 유제욱(옥천읍), 이경희(옥천읍), 조관희(이원면) ※ 가나다순임.

※ 응모자 총 123명 중 정답자는 120명입니다.(무효 3명 제외)

정답 **모 목 축 제**



굽이치는 옥천,
금강 네 번째 이야기

금강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서화천생태습지'

금강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서화천생태습지 조류 전망대에 오르면 자연에 인공이 가미된 하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산비탈 사이로 잔잔히 흐르는 하천과 정화를 위해 조성된 인공 습지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기 때문이다.

하천과 습지를 오가며 먹이를 찾는 다양한 조류와 저 멀리 옥천 북쪽을 감싸는 환산(583m)의 위엄까지 더하면 하늘과 산, 강을 배경으로 참 풍경이 그려진다.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가 만들어 내는 자연과 문명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서화천은 금산군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을 관류한 후 금

강 본류(대청호)로 접어드는 하천이다. 맑기로 소문난 장령산 금천 계곡물도 서화천을 거쳐 금강으로 흐른다.

서화천생태습지는 이 하천이 금강 본류와 합쳐지기 전에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인공습지다. 전체 조성면적은 15만 5000㎡, 습지면적은 3만 4500㎡다. 침강지로 유입된 물은 깊은 습지와 얇은 습지, 생태침강지 등을 거쳐 정화된 후 방류된다.

생태습지에는 갈대, 부들, 달뿌리풀, 수련 등 수질 정화 식물들이 살고 있다. 더불어 방울새, 직박구리, 물까치 등 텃새와 여름에는 왜가리,

물로 승격된 '옥천 이지당 (보물 제2107호)'이 자리 잡고 있다.

옥천 이지당(二止堂)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증봉 조헌 선생이 후학을 양성했던 서당이다. 그 후에 송시열 선생이 당호를 '이지당'이라고 짓고 직접 현판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서당 중 보물로 지정된 일은 처음이라 큰 의미가 있다.

서화천생태습지를 지나친 물줄기는 4km 정도를 더 간 후 천혜의 절경 '부소담약'과 마주친다. 옥천9경 중 제3경에 속하는 부소담약은 대청호 위로 길게 뻗은 기암절벽(병풍바위)으로 그 길이가 700m에 달한다.

굽이굽이 몇 굽이를 휘돌아나간 하천은 부소담약을 지나 군북면 이평리에서 금강 본류와 합류한다. 이렇게 시내, 개울, 도랑 등이 모여 천(川)을 이루고 천이 흘러 큰 물줄기를 만들며 옥천을 쉽 없이 흐르는 여행자가 바로 금강(錦江)이다. 서화천생태습지는 비록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 정화시설이지만 인근 풍광과 어울리며 지역 주민과 여행객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함께해요

경제과 일자리센터 ☎ 730-3396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 센터 ☎ 731-9542/9532

사업장명	채용제목	인원근무지(주소)	임금액(상여금)	근무형태	문의
(주)원일패널(본사)	4.5톤이상지게차운전원 생산부직원모집 영업직사원모집	1명 1명 1명 동이면 지양2길	월급 1,822,480원 이상	주5일	010-9330-4409
국제종합기계(주)(본사)	사무보조 직원 모집	1명 옥천읍 서부로	시급 8,720원 이상	주5일	730-1519/010-5626-2580
(주)스마트도어(본사)	도장원모집 생산직 모집	2명 2명 동이면 동이농공길	월급 2,200,000원 이상 ~2,400,000원 이하 (상여금200%)	주5일	731-3525 010-2894-7784
농업회사법인(주) 은혜농산(본사)	새벽 배송직 직원 채용 생산직 직원 채용	1명 1명 군북면 자모길	월급 2,250,000원 이상~2,500,000원 이하 월급 1,850,000원 이상~2,300,000원 이하	주5일	733-5846 010-7282-8524
황금이네(본사)	(정규)건강식품제조관련 생산직	1명 안남면 도농 4길	월급 2,400,000원 이상	주5일	070-4124-4981 010-4506-7796
장령산요양원(본사)	간호조무사	1명 군서면 장령산로	시급 9,200원 이상~9,500원 이하	주5일	733-1479/010-3159-0127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오케이120(본사)	영업기획 사무직 채용	1명 옥천읍 금장로	월급 1,822,480원 이상	주5일	731-0301/010-5164-1563
동양정밀(본사)	경리및 총무사원 모집 생산관리원 모집	1명 1명 군서면 동평 3길	월급 1,830,000이상 월급 2,200,000이상(상여금250%)	주5일	733-5627 010-9743-5607
교칠리아(본사)	경리 채용 생산직 채용	1명 9명 옥천읍 동이로	월급 1,900,000이상 월급 1,830,000이상	주5일	733-5846
주식회사맥우글로벌(본사)	맥우판매장 직원 채용	1명 군서면 성왕로	월급 2,300,000이상	주6일	731-0167/010-4917-1419
도담노인요양병원(본사)	일반 간호사	1명 옥천읍 청풍로	월급 3,000,000원	주5일	733-6604/010-6383-6604
삼승엔지니어링(본사)	2D3D설계(캐드)임가공 CNC/MCT선반 조작원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3명 3명 3명 옥천읍 의료단지길	월급 1,850,000원 이상 ~2,200,000원 이하	주5일	731-2971 010-3177-8044
주식회사엠케이(본사)	생산직 직원 모집	4명 옥천읍 의료단지길	연봉 22,000,000원 이상~26,000,000원 이하	주5일	731-8021/010-8424-2985
대한산림엔지니어링(본사)	토목설계감리 및 인허가 경리직원모집	1명 옥천읍 중앙로	월급 2,000,000이상	주5일	010-5437-2435
(주)대승(본사)	생산직 직원 모집	5명 옥천읍 서부로	시급 8,720이상	주5일	731-8127/010-4622-8127
(주)서진기계(본사)	현장 작업 단순직	3명 옥천읍 서부로	시급 8,800이상~10,000이하	주5일	731-7044/010-9400-4929
향수한우판매장영농 조합법인(본사)	출서빙직원	1명 옥천읍 가화길	월급 2,700,000원	주5일	733-9577/010-5014-9895
(주)비에스실텍(본사)	고무,성형기 조작 생산 직원모집	4명 옥천읍 양수로 6길	시급 8,720원 이상	주6일	070-4681-4589 010-2216-7582
충북농원영농조합법인(본사)	농업단순종사원	2명 이원면 이원로	연봉 29,000,000원 이상~30,000,000원 이하	주6일	732-2073/010-9425-8245
제룡산업(주) (청산공장)	생산관리 책임자 모집	1명 청산면 남부로	연봉 30,000,000원 이상~50,000,000원 이하	주5일	730-2200/010-3462-7910
코리아특장자동차(주) (본사)	생산직 직원 모집 자재구매사무원	4명 1명 옥천읍 서부로	월급 1,830,000원 이상 (상여금200%)	주5일	731-8161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개최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만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본격적인 농작업을 시작할 시기”라며 “봄철 영농활동과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기후변화 대응대책, 군 차원 심리적 방역 구축 필요성(곽봉호 의원)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아울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52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인 204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의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옥천군의회 제공

4차 재난지원금 농민지급 촉구 건의문 채택

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지난달 18일 개의한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하고 제안 설명한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인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농민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모든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재인 농산물 생산비 보장제도 마련 △농산업 전반에 관한 코로나19 피해현황 파악 및 실질적인 재난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옥천군의회는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옥천군의회 제공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2일 간담회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부와 협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건명	제출부서
8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 보고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안내면 인포리 숲길조성사업 추진계획(안)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생활SOC복합화 사업 연계추진) 공유재산 취득(안)	경제개발국 경제과
군북면 지역특화사업(부소담악 전망데크길 조성) 공유재산 취득(안)	경제개발국 경제과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갱신) 계획	경제개발국 산림녹지과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건립계획(안)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축분뇨 처리대책 마련 촉구 곽봉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의한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에 가축분뇨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분의 부

속도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쓰임새를 제한하는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021년 3월 25일에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부속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속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분 발생량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과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의 공급량 확대,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방안 제시 유재목 의원 5분 자유발언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은 지난달 23일 개의한 제288회 옥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으로 국내·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부족현상과 피로 누적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새로운 간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 인력의 핵심인 간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악화되는 가운데, 충북 남부권의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과 지역대학 간호학과 신설은 물론 공공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서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차단하고 있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지역대학 내 간호학과 신설 및 공공의료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옥천경찰서, 치안고객만족도 1위 달성

옥천경찰서(서장 안창익)는 치안고객만족도 2월 조사에서 충청북도경찰청 12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에 옥천경찰서를 직접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 모바일로 실시됐다. 고객만족도,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 담당자 응대 태도, 서비스 품질, 시설과 이용환경, 전반적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서는 이번 치안고객만족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소리(VOC)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파악 및 경찰서 내 기능별 추진 및 개선사항 체크를 통한 치안고객 만족의 점진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안창익 서장은 “2월 조사 결과가 상위권이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경찰서 전경. 옥천경찰서 제공

옥천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대책 추진 총력

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 화재 발생이 높은 봄철을 맞아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입산자 증가 등으로 실외화재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 487건 중 봄철이 145건(29.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60.7%이며, 재산피해는 5년간 연평균 3억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봄철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안전관리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 △산림화재 신속 대응 △코로나19 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과 대형사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집중 홍보의 해로 지정해 주거용 컨테이너 등 화재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장창훈 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대형화재로 연소 확대 우려가 높아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봄철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소방서는 지난 3월 2일 군서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을 실시하고 있다. 옥천소방서 제공

90세 노인 안전 귀가 조치 옥천경찰 감동사연 눈길

안내파출소 정현준 경위·정관형 경사

혹한의 날씨 속에서 힘겹게 비탈길을 오르던 90세 노인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한 옥천경찰의 따뜻한 감동 사연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한적한 시골마을을 안남면 고갯길을 탄력 순찰 중이던 안내파출소 정현준 경위와 정관형 경사는 전동차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당시 노인은 타고 있던 전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고갯길 오르막길에서 멈춰버렸다.

자칫하면 위험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노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다가갔다.

노인은 “나랏일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 내가 끌고 가면 된다”고 한사코 도움을 거절했다.

경찰관들은 긴 설득 끝에 1km 남짓한 거리의 노인의 집까지 전동차를 끌고 갔으며, 노인은 순찰차에 태워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이번 선행 미담 사례를 접한 옥천경찰서 경무계는 사연을 듣고 영상을 수집한 후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충북도경찰청 SNS에 올렸고, 언론에 ‘90세 쿨한 할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조명되기도 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는 선순환 홍보 우수 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님 아주 존경합니다’, ‘저런 경찰들 보면 든든하다’, ‘할아버지 정말 쿨하시다’ 등 훈훈한 댓글과 옥천경찰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옥천경찰서

QUIZ EVENT

옥천경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1:1 채팅창에 정답보내면 예쁜 선물이 평평!

보이스피싱
OX퀴즈 풀고
선물받자

의심의 민족

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O X

이벤트 기간 21.3.2~5.1 | 당첨자 발표 21.5.12 | 응모지역 옥천경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친구

* 이벤트 진행 및 당첨자 경품 발송을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를 수집합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거부시 이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시 광범위합니다.

옥천경찰서 옥천군지역연합회

옥천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한 배움터 만든다

마을방과후사업·주민제안교육사업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

옥천행복교육지구(공동위원장 군수 김재중, 교육장 최경희)는 지난달 8일과 11일 23개의 마을공동체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연계 마을방과후사업, 주민제안교육사업, 함추름교육과정 공모사업, 마을아카데미 등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연계 마을방과후 공모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방과 후 운영으로 학생의 질 높은 삶과 여가를 확보하고, 지역 정체성 형성 및 애乡심을 고취하는 교육 활동이다. 이번에 선정된 안남 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안남초등학교와 안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주민제안교육사업은 지역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마을교육 사업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사업은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공동체운영사업(옥천전통발표식품협동조합), 맘스토리와 함께하는 그림책놀이(동화구연 맘스토리), 들관 꿈의 학교 논에서 자라요(한두레 영농조합),

옥천마을 교육공동체 지역교육의제 모임(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사랑방 문화예술교육)이 선정돼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함추름교육과정 공모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활동으로 선정됐다. 역사야 옥천에서 놀자(다릿돌), 정기용 향수를 통한 오감체험(온고앤지신), 옥천의 콜롬버스(green bloom), 전지적 환경 시점 프로젝트(덕실농부이야기)가 선정돼 지역의 14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아카데미 사업은 지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학부모, 지역주민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높이고 있다. 13개의 마을 아카데미가 선정됐으며 우리 동네 재주꾼 힐링캠프(우동재), 우리동네 진로 길라잡이(jab)이(라운 사회적협동조합), 더 이음 마을아카데미(더이음), 우리밀과 함께하는 옥천(팜앤쿱), 보따리-보석같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 키득키득(보따리), 대천리 마을과 함께하는 '위풍당당 홀로서기 시즌2'(영실애육원), 함께 요리하는 행복한 밥상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맑은차, 밝은청춘(아르아르), 마을 밥상레시피를 공유하라!(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그림자로 만나는 동화(옥천 동화읽는 어른 모임), 똑똑 인공지능탐험대(벤엘선교센터), 옥천 와이즈뮤직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꿈이 있는 작은도서관), 차와 함께하는 미래식량 탐험대(옥천금강꽃병이 영농조합) 등 강좌가 개설됐다.

옥천행복교육지구 관계자는 "민관협력사업은 아동 청소년만이 아니라 주민, 학부모가 마을을 놀이터와 배움터로 하며 함께 어울리고 기획, 실행하게 된다"며 "힘차게 활동을 시작한 다양한 공모 활동이 공동체적 가치와 협력,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교육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별 활동은 행복교육지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용은 밴드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 사업별 공개회원 강좌는 옥천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옥천교육도서관,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 개최

옥천교육도서관(관장 김성진)은 제57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자연환경'을 테마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과 독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서관은 17일에 장수풍뎅이 유충을 관찰하고 사육 키트를 꾸며보는 '생명의 신비'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은 곤충의 구조를 관찰하고 직접 표본해 볼 수 있는 '곤충 표본 만

들기'를 운영한다.

18일에는 '호랑이 꽃방귀' 도서를 읽고 봄 구근식물을 화분에 심어보는 '봄에 만나는 향기로운 알뿌리 꽃 친구들'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는 초본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봄 초화류 모듬심기'로 바구니에 꽃을 직접 심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신청 시 재료비는 무료이며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도서관에서 가정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 폼을 통한 독서 퀴즈 이벤트를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며 참여자 중 당첨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한편, 체험 프로그램 접수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교육도서관 홈페이지www.ocelib.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43-733-7051)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교육 도서관 제57회 도서관 주간 행사 일정

구분	행사명	일시	대상	방법	내용
1	생명의 신비	4. 17.(토) 10:00-11:30	초등 저학년	온라인(Zoom)	장수풍뎅이 유충을 관찰하고 사육 키트 꾸미기 및 관찰일지 작성하기
2	곤충 표본 만들기	4. 17.(토) 14:00-15:30	초등 고학년	온라인(Zoom)	곤충의 구조를 관찰하고 장수풍뎅이 표본해 보기
3	봄에 만나는 향기로운 알뿌리 꽃 친구들	4. 18.(일) 10:00-11:30	초등 저학년	온라인(Zoom)	"호랑이 꽃방귀" 동화책을 읽고 봄 구근식물을 화분에 직접 심어 보기
4	봄 초화류 모듬 심기	4. 18.(일) 14:00-15:30	초등 고학년	온라인(Zoom)	초본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봄 초화류를 바구니에 심어보기
5	온라인 독서 퀴즈	4. 12. ~ 4. 18.	홈페이지 이용자	옥천교육도서관 홈페이지 (구글 폼)	옥천교육도서관 홈페이지의 독서 이벤트 참여자 중 당첨자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

- 모집기간 : 3. 29. ~ 4. 9.
- 신청방법 : 전화접수(☎ 043-733-7051)
- 참여 행사비는 무료이며 재료는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정부 공공의료정책 맞춰 간호학과 신설 온 힘”

충북도립대서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協 임사회 열려
지방간호인력 부족·의료법 개정 위해 역량 집중 예고
간호학과 신설 통해 옥천지역 의료부족 해소 등 기대

전국 국공립전문대학교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맞춰 지역공공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충북도립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전문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신설됨으로써, 간호인력 양성을 통한 옥천지역의 의료부족현상 해소와 청년인구 유입 등이 기대된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와 ‘지역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건의’ 등에 대해 총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 임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도립대학교 공병영 총장을 비롯한 박유동 협의회장(경남도립거창대 총장)과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조현명 경남도립남해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대중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부족사태와 간호사들의 수도권 이직현상에 따라 지방의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의 의료서비스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전문대학에서 직접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호학과를 신설,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시험 관련한 조항이 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 개정 요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학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 조항을 신설해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로 힘쓰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협의회는 각 대학의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

로 대응하기로 약속했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병영 총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간호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해소와 국가적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의료법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국국공립전문대학이 지역과 국가적인 간호 인력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임사회에서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립대 제공

학생기고문

새 학기가 기대되는 우리들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COVID-19)’가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활에 정착해 있다. 코로나는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으며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허다했다.

2020년의 충북도립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개강은 점차 미뤄져 1학기를 전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고 2학기부터서야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며 교수님들에게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마스크를 끼고 눈만 보인 채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 참 아쉬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생활 중 하나를 꼽자면 미디어센터에서 옥천경찰서와 옥천군청과 협업하여 진행했던 아동폭력 예방 영상 제작이다.

최근에도 가정이나 유치원 등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곳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력들을 아이들에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사건

들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중심적인 내용은 라이브 드로잉으로 진행되었다. 라이브 드로잉은 처음이라 어떻게 표현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아주 어려웠다. 그림을 이어나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도 팀원들과 계속해서 상의해 나가고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며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쳤다. 편집까지 해서 작품이 완성된 날 경찰청에 영상을 넘겨주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학교 직원들과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총장님께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몇몇 팀원들은 옥천경찰서 표창장도 받았다.

프로젝트 기간에는 많이 힘들고 지쳐있었지만, 결과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뿌듯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외에도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인터뷰도 같이 진행되었다.

어쩌면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보낼 수도 있던 시간들이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고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의 발자국들이 될 앞으로의 나날들이 기대된다.

2021년,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이며 마스크는 얼굴에서 벗겨질 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해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기대를 하고 이제는 코로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을 가슴속에 품게 된다.



반도체전자과 허정진

닭 이야기(I)

김기남(옥천읍)

“아우님. 닭 한 마리 키워 볼라우?”
농사일로 동승한 종형이 뜬금없이 말씀했다.
“예? 웬 닭유 형님?”
“청계 닭 수놈인데 힘이 좋아.”
그러자 나도 농장에다 닭을 키워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었는데 귀가 솔깃해졌다. 더구나
알이 꽤나 몸에 좋다는 청계인지라 관심이 커
졌다.
“근데 왜 한 마리유? 수놈 한 마리면 그냥 잡
아드시던지, 대동 형님 키우라고 드리지요?”
“난 닭고기를 안 먹어. 그러구 그 동생도 별
관심이 없다고 하네.”
“앵? 그러? 그런데 수놈 한 마리를 어찌라
구.”
그래도 욕심이 발동하는지라 “그럼 주셔 봐
요” 했는데 막상 키울 데가 마땅치 않다. 궁
리 중이던 어느 날 종원 댁 앞에 있는 토끼막
이 눈에 띄었다.
“형수님 저거 뭐 할 거요?”
낮잠을 즐기는 형님께 물어보더니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는 말씀이다. 옹지나 싶어 농장
하우스 귀통이에 설치했다. 플라스틱병을
쪼개어 모이통, 물통을 만들고 그럴듯하니
방을 꾸미고는 청계를 이주시키고 사료를 주
고, 풀을 뜯어다 주며 정성을 들였다. 먹어도
잘 먹어 나날이 덩치도 커지고 수컷 티가 났
다.
그런데 이놈 종형 말씀대로 힘이 좋아선지 사
료를 너무 먹여선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댔
다. 옛 어른 말씀에 “닭울음소리로 시간을 쟀
다”고 들었는데 자명 시간은커녕 영역 포고
도 아닌 불만이 가득 찬 소리로 들렸다. 언뜻
쫓겨난 사유를 알 것만 같다. 주변 주민들 민
원에 읍내도시에서 여기 산골로 쫓겨났지 싶
었다.
한동안 좁은 우리에서 제대로 운동도 못 하
고 울음만 울어대는 꼴을 보자니 한편 측은
한 생각이 들었다. 암탉을 수소문해보니 인
근에 청계를 키우는 농장이 있어 농장주에게
분양 약속을 받고는 닭장 만드는 구상을 했
다. 철재로 커다랗게 제작된 우리를 구하면
될 듯했다. 시내 철물점을 다 뒤져도 비슷한
것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창틀을 시공하는
업체를 찾아갔다. 거기도 제작된 닭장은 없
었다. 부인께서 얘기를 듣더니 울안에 있는
닭장과 염소 막으로 안내했다. 닭장은 촘촘
한 철망으로 전체를 막고 바닥을 땅에서 높

이 해놔야 짐승피해
를 막을 수 있다며
철망구입처도 친절
하게 알려주었다. 닭장규모를 가로, 세로, 높
이를 계산하여 철망을 사고 기둥 할 목재를
여기저기서 구하고 마침 집 앞에 있던 가게
를 리모델링하면서 폐기할 목재가 쌓여 있어
“몇 개 가져가도 되느냐” 했더니 “다 가져가
도 된다”고 한다. 필요한 만치를 고르고 있자
니 “쌓인 자재를 다 가져간다면 필요로 하는
기둥감을 별도로 주겠다”고 했다. 지붕재로
는 페널로 따로 구입했다.
생애 최초 역사적 건축공사를 했다. 닭은 흙
목욕을 해야 몸에 붙은 해충도 제거하고 건
강하다는 상식에 따라 바닥을 깊게 파고 철
망을 깔고 다시 흙으로 덮은 뒤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웠다. 혼자 하자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철망에 미끄러지는 기둥은 한쪽을
세우면 한쪽이 넘어지고 또 세우면 기울어지
고, 하다하다 포기하고 다음 날 아내에게 사
정하여 재도전을 했다. 기둥을 세우고 한참
을 고민하고 망 씌우고는 연구하고, 진도는
없고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있자니 아내가
“닭장 하나도 제대로 못 짓는 위인한테 전원
주택을 평생 기대하고 있었으니...”라며 혀를
끌끌 찼다. 우여곡절 끝에 내 댁에는 그럴듯
한 건물을 한 채 완성했고 닭을 풀어줬다. 기
분이 우쭐하여 “기다려라. 예쁜 색시를 너에
게 안겨 줄 테니”라고 말하니 닭장이 맘에 들
었는지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이놈 네 활개를
쳐댔다.
미로를 헤맨 끝에 약속한 청계농장을 찾아가
암컷 2마리를 사서 넣어줬더니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게 들렸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서 저간의 얘기를 하자 한 친구가 미소를 지
으며 “집에 알 잘 낳는 토종닭 몇 마리 있는
데 내 한 마리 줘세”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자와 친구농장에 가니 듬실한 암탉 두 마리
를 부대에 담아주며 “알을 잘 낳는다”고 재삼
강조했다. 빈손이 허전해 들고 간 음료수 한
박스가 두 마리로 됐지 않나 싶었다. 수놈 색
시 네 마리가 줄지에 생겼으니 그야말로 신
바람이 났다. 주인이 보든 말든 꼬리를 치켜
세우고 한쪽 날갯죽지를 내리트리고는 암탉
을 쫓아다녔다. 지인이 닭장을 보고는 호텔
을 지었다고 칭찬을 했다. 식구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흥주(옥천읍)

아침 인터넷뉴스
뜬금없는 제목이
호기심가운데로 끌어들인다
한 바퀴 돌아보니 가슴 답답하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행복이 와야 하는데
왜 ㄷ字가 붙어오나

봄이 열릴 무렵
벚꽃은 아랫녘서부터 화신을 들고 온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정해진 순리대로 한양천리
속도위반모르고 천리 걸음 한다
세상이 이 걸음 따라하며 황홀한 빛으로 덮인다
벚꽃이 지나는 자리마다 환희로 차는데
왜 그 자리마다 망조가 붙어갈까

채워줄 머릿수가 미달해
한양에서 저 멀리 대학부터
한양으로 한양으로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해 오른단다

젊은이들이어
아이 줌 낳으소

청산 장날

박근석(옥천읍)

유행을 따라잡지 못한 속살
그을린 중고 같은 것
무대 주인공인 양 좌판에서
목청 가다듬어 노래한다
나를 사세요 나 줌 사 가세요
나를 줌 책임져 주세요
아, 지독한 기다림
먼지와 바람이 주인인
허리 굽은 노인들의 수다방
봄을 덧칠하는 노란 송화가루
마르기 직전 때 맞춰 뿌린다
물뿌리개로 솔솔

옥천사람들

“마당을 수놓으며 깨닫는 것들”

프랑스 자수 작가 · ‘시골마당있는집’ 유튜버 윤혜경 씨

이원면 강청리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흰색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소박하고 낮은 나무 대문과 봄볕에 생명이 움트는 정원. 마당 꾸미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눈길이 머무는 집일 테다. 프랑스 자수 작가이자 약 27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시골마당있는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윤혜경 씨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실인 ‘로템나무’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면 윤 씨의 반려견 순대가 먼저 손님을 맞이한다. 윤 씨 부부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 공간에는 두 사람의 작품을 비추는 조명과 빈티지 소품, 푸른 식물들이 분위기를 더 한다. 실제 사용 중인 낭만적인 벽난로도 눈에 띈다.

“이 집은 살림 공간, 갤러리 공간,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공간을 모두 관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시골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었던 저에겐 지금이 몹시 행복하죠.”

대전에서 거주하던 윤 씨는 5년 전 귀촌을 마음먹었다. 시골에서 마당을 가꾸며 소박하고 차분한 삶을 꿈꿔왔던 그에게 귀촌은 오랜 바람이기도 했다. 오래 바라왔던 일이었기에 가족들도 윤 씨의 선택을 지지했다. 귀촌을 마음먹은 이후 남편 김호성 씨의 작업실이 있는 대전 인근 지역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이원면 강청리의 100년 된 농가 가옥이 눈에 들어왔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에도 참여하며 지금의 로템나무가 탄생했다.

화장실도 수도도 없는 오랜 주택을 개조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다. 집을 개조하며 힘들 때마다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준 건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었다.

“이 집은 모두의 손과 하나의 마음에서 탄생한 셈이에요. 가족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집이 된 거죠. 집을 고치는 4개월 동안 땀도 많이 흘리고 힘도 들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윤 씨는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이 집에 ‘로템나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성경에서 로템나무란 지친 사람에게 쉼을 제공하는 그늘이자 쉼과 안식을 상징한다. 쉼과 안식이 있는 마당에서 꽃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간판도 내걸었다. 이 작은 간판에 얹힌 웃지 못할 사연도 있다.

“간판이 걸려있으니 카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저희가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자 가정집일 뿐입니다.”

마당을 관리하고 SNS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그이지만, 본업인 프랑스 자수 작품을 창작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의 가장 주된 주제는 꽃, 그중에서도 맨드라미는 윤 씨 작품의 상징이 됐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짙은 색상과 특이한 질감이 특징인 맨드라미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수놓기 위해 관찰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제 작품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데, 사진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받았을 때 실망하시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요.”

가방에 수놓은 맨드라미는 금방이라도 나비와 벌이 찾아올 것처럼 생생해 보인다. 봄 햇살을 받아 더욱 싱그러워 보이는 그의 작품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실일 테다.

일상과 마당 이야기가 업로드되는 유튜브를 통해 이 집이 사랑받고 또 알려진 만큼 윤 씨의 일상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녀와 이 집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방송 출연 요청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벌써 몇 차례 방송에 출연했지만, 촬영은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으로 나오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요즘은 출연 요청이 들어

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려고 해요.”

잠들었던 식물들이 기지개를 켜는 그의 마당처럼 봄이 오자 그의 일상도 다시 분주해진다.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마당에 튤립을 심었어요. 멀찍이 서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자세를 낮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새싹들이 보여요. 작은 생명일수록 자세를 낮춰야 보인다는 걸 마당에서 깨닫고 있어요. 앞으로 이 집을 가꾸며 또 이 집에 살며 행복을 만들어야죠.”

아파트에서 또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윤 씨. 그의 손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봄기운이 찾아온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빛은 언제나 찾아든다’

꺾직한
점포를
찾아서

2대째 한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는 닭·오리요리 전문점 ‘혜성식당’

옥천공설시장 인근, 차 한 대가 지나 가기도 비좁은 골목길이다.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위치이지만, 여기에는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식당이 있다. 40년째, 대를 이어 같은 자리에서 닭·오리요리를 연구하는 ‘혜성식당’이다.

식당 내부에 들어서니, 단채로 찾더라도 넉넉할 법한 공간이다. 편하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바닥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방으로 독립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큼지막하게 자리 잡은 메뉴판에는 마누룽지백숙, 한방삼계탕, 닭도리탕 등 닭·오리요리도 있지만, 김치·된장찌개, 소불고기전골, 동태찌개 등 예상 밖의 요리도 있다. 식당 앞쪽에 층층이 쌓인 계란판도 눈에 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서 닭·오리·계란 장사를 하셨어요.”

80년도에 처음 가게를 연 임재순(66) 씨의 뒤를 이어 지금의 혜성식당을 운영하는 아들 김태환(42) 씨다. 안남에서 직접 닭을 키워 이 자리에서 유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곳은 옥천에 오래 거주한 이들이라면 모두 알 정도로 유명했다는 ‘혜성치킨’이 되었다가 2000년도에 ‘혜성식당’으로 조금씩 변모해왔다.

“사실 어머니가 닭·오리를 판매할 때부터 찌개 요리도 하셨었죠. 치킨집을 할 때도 통닭보다 찌개가 더 유명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 가게를 물려받아서 신메뉴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달라진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혜성식당이다. 식당 뒤편에 자리한 ‘옥천닭집’ 또한,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고 40년 단골손님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계란을 구매한다. 김 씨는 20대를 보내던 중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님을 도와야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에 돌아왔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연구한 끝에, 혜성식당의 대표메뉴인 ‘마누룽지백숙’이 탄생했다.

“그때 아들이 엄청 고생했지. 내버린 재료도 엄청 많았어요.”

어머니 임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주변에서 “있는 메뉴를 하면 되지, 왜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시간과 재료를 낭비하느냐”는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차별화된 메뉴를 만들고 싶었다. “뜨거운 성질의 닭/오리와 차가운 성질의 마가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했다. 백숙에 마가 들어가니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죽이 더 고소해졌다. 그는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마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음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음식을 할 때 ‘재료와 타협하지 말자’는 게 저의 신념이에요.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에, 한 번 맛본 손님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 부산에서 온 손님이 이후에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느냐” 연락을 주신 일도 있었다고. 식사를 끝낸 후에 추가로 포장주문을 해,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들도 있었다.

그는 재료 외에도 조리 과정에서부터 손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위생에도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했다. 손님이 식사 후 떠난 뒤에도 남은 반찬이 있으면 혹시 시간이나 궁합이 맞지 않았는지를 살피기 위해 맛을 보기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포장·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이 또한 그가 담당한다고 하니, 24시간이 모자란다. 바쁜 외중이지만 얼마 전부터 새로운 메뉴도 연구하고 있다. 옥천 특산물인 ‘송고버섯’을 활용한 백숙 요리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혜성식당 김 씨는 앞으로도 닭·오리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강한 맛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이야기한다. 지금보다 더 넓은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의 이사 또한, 꿈꾸고 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빛은 언제나 찾아든다’ 식당 한 칸에 정갈하게 걸린 서예작품에 이들의 앞날이 겹쳐 보이는 듯하다. 닭·오리를 유통하던 집에서 치킨집, 닭·오리 전문 식당으로 이어와 2대째 운영하기까지 혜성식당은 끊임없이 달려왔다. 앞으로 혜성식당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 변하지 않을 것은 음식과 사람 그리고 미래에 ‘진심을 다하는 마음’일 것이다.



혜성식당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6길 8
영업시간 : 매일 10:00~21:00
전화번호 : 043-731-4969



※ 옥천에 소재하는 점포들을 알리기 위해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로 개인의 홍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